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3호 [루게 제25131호] 주제 104 (2015)년 12월 19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로동당장하며 통일애국투사로 생을 빛내어가고있는 비전향장기수 박문제는 인생의 가장 값높은 영광과 행복을 안겨준 당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으로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보통장기수 박문제는 로동자 허은희는 물심양면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서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건설장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돌격대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강서구역 샘물동 79인민반 권인용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를 가지고 건설자들을 찾아와 일도 함께 하고 경제선동도 하면서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라선시 라선교류회사 부원 배명남, 개천시편의봉사

반리스 로동자 정명환은 고산광의 전변을 안아오는 거창한 투쟁에 기여할 열의드높이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뜨거운 지성을 바치었다.

반일애국렬사유가족으로서 받아안은 당의 은덕에 보답할 한마음으로 평천구역연료사업소 로동자 김순실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건설장에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줌으로써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대자연계조투쟁에 참가한 심정으로 평양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윤은정은 고산과주충화농장건설에 순결한 공민적정신을 바치었다.

조선통일발전은행 부원 김정성도 맑은 혁명과업은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대규모과일생산기지건설을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의 큰 격려를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대 건설투쟁을 성의껏 지원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할 혁명적열의를 넘쳐냈다.

본사기자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빛을 뿌리는 주체의 사회주의

남조선 각계가 격찬

주체의 광휘로운 빛으로 세기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조국번영의 대전성기를 마련해주신 배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끝없는 경모와 각계의 정성이 세월에 흐를수록 더해만 가고있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금수산태양궁전에 영성하는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최고위인으로 높이 칭송받으신다고 하면서 그것은 주석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전세계 인류가 나아가 길을 밝혀주시고 세계의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탁월한 정치가 시가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김일성주석님은 인류의 운명개척을 위한 영원한 보검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사상리론의 거장이실뿐 아니라 인간중심, 민주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세우신 건국의 어버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고 칭송하였다.

《한민족복지재단》 성원 김강원은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역장자들이 뒤덮었던 이 땅에서 실용만을 안고 죽지 못해 살아간 우리 민족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이북에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들이 주어진 민중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었다. 주석님께서 세워주신 이북의 사회주의가 김일성주석님의 선군명도 밑에 강성국가건설의 포성을 행성우에 높이 울렸다. 김정 이북민중은 이 세상 누구도 지닐수 없는 수령복, 장군복, 제도복을 누리고있는 가장 행복한 민중이다.

인현의 한 대학교수는 주체의 조국으로 빛나는 북의 력사,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북의 거창한 전변의 력사는 그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절대적정리성과 거대한 생명력에 대한 일대파사이며 조국과 민족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일성주석님의 불면불휴의 소고와 애국헌신의 뚜렷한 증시라고 마음속 진정을 더하였다.

한 언론인은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 북처럼 근로민중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정권은 찾아볼수 없다. 누구 하나 평등하며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뿐 아니라 민중중심의 복지사회를 펼쳐놓는 정권, 이것이 절세위인들의 높이 모시여 이북땅에 거연히 솟은 주체의 사회주의, 진정한 근로민중의

정권이라고 격찬하였다.

인현의 한 과학자는 이북의 지식인들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내세워주시신 김일성주석님을 지식인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지성의 길로 인도해주신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고 토로하였다.

서울과 제주도의 주민들속에서는 고난의 행군의 전투에서 서서히 달리는 야전차처럼 주위로 삼으시고 눈비바람,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헌지지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선군정신이 있어 공화국이 일일단결된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라갔다는 진정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통일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북의 강력한 군력은 김일성주석님위인장의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그 군력에 의해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거국이 창조되었다.》, 《국방위인장의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북은 세상을 놀래우는 변혁을 창조하고 제국주의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세 기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한 민족단체 성원은 오늘날 이북이 근로민중이 주어진 사회로, 백성인들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내세워주시신 김일성주석님을 지식인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지성의 길로 인도해주신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었다고 토로하였다.

남조선 각계 총 인민들은 《김정은제1위인장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들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이북민중을 령도하고계신다.》, 《김정은제1위인장께서는 주체위인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밝히시어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필수의 보검을 마련하여주시었다.》, 《민중중심의 북의 사회주의는 불패의 생명력을 지니고 영원히 승리할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연합뉴스》,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건하시고 이끌어주시신 주체의 사회주의의 조선을 만반에 갖춰주시며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강성국가건설에서 위문하시도록 인민명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공포에 대해 널리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높은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고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풍습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

얼마전 나미비아의 윈드후크에서는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0차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의 비물질문화유산인 김치담그기풍습을 최중심의하고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해에 조선인민이 《아리랑》이 우리 나라의 첫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데 이어 뜻깊은 올해에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풍습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것은 우리 당의 혁명한 민족유산보호정책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산나물이나 담채 등에 양념과 함께 과일이나 고기, 물고기 또는 젓갈같은것을 잘 배합하여 발효시켜 만드는 김치는 사색한 맛과 독특한 향기를 가질뿐이

라 영양학적 및 약리적으로 하여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모으고있는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우리 인민은 1년 사계절 김치를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고 있는데 그 가지수만 해도 매우 많다.

이러한 김치를 담그어먹는것은 먼 옛날부터 전해져오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우리 인민의 김치담그기풍습에서 특징적인것은 김치를 담글 때 이웃들이나 친척을 또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것을 융화한 일로 여기는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김장을 비롯하여 매 계절에 따르는 김치를 담그어먹는것은 가정과 마을, 일터에서 우호한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를 함양하여 집단적 단합을 적극 이룩하는 계기로 된다.

하기에 유네스코는 우리 나라가 제기한 김치담그기풍습에 대한 최중심의에 앞서 공개한 문서에서 《조선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 경험을 잊지 않고 배우고 배워줄뿐 아니라 서로의 원조제마련과

준비를 도와주고있다.》고 밝혔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인민의 김치담그기풍습은 민족문화 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언제나 큰 힘을 날고있는 당의 혁명한 령도아래 날로 활짝 꽃피어가고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담채보장을 비롯하여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끝없이 빛내여가신 당의 깊은 관심속에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풍습을 더 활짝 꽃피우려는 아름다운 화풍들이 어디서나 펼쳐지고있다.

어느 가정에서나 세대와 세대들 이어 김치담그기방법과 기술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더욱 발전되고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김치담그기를 비롯한 계절에 따르는 김치담그는 모습이 차등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후대들은 유치원때부터 벌써 기초적인 김치담그기에 대한 열정을 품어 중학교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김치담그기에 대하여 배운다. 전문교육기관들과 연구기관에서 전문기양생사업과 연구사

업을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의 동지로서 김치담그기와 관련한 각종 경연 및 동경회를 적극 진행하여 김치담그기기술발전과 그에 대한 사회적보급을 적극 도모한다.

조선민족박물관 등에서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풍습의 역사적유래와 변천과정, 지방별에 따르는 김치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한 자료들과 유물들을 통하여 김치담그기풍습에 대한 참관자들의 리해를 더욱 풍부히 해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교육위원회, 사회과학원, 조선인민군사령부 중앙위원회 그리고 각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풍습을 사랑하고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광범한 대중의 드높은 열의가 발휘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자랑인 김치담그기풍습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2호로 등록되도록 올해에는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세상에 더욱 빛을 뿌리는 성과까지 이룩되였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일군들은 한결같이 이번 성과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적극 발전시키는것을 중

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들 위한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들며주시신 김일성주석님과 어머니당의 손길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세상에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가 반영없이 흐르는 이 땅은 명실공히 우리의 민족성을 더욱 광범히 꽃피우며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보다 풍부히 해주고 그 지속적발전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 풍부한 비물질문화유산의 보물고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세계비물질문화유산이 늘어나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조직이 크나큰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다.

그와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저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에 제시된 광명적과업을 높이 받들여 우리 나라를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세계적인 선진문명국, 통일번영하는 강국으로 빛내일 것 심심드높은 전진의 발구름속에서 더욱 우뚝하게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오현철

세로지구 축산기지에 더 많은 먹이가공설비를

남시축산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연간 축산설비생산계획을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난 10월까지 계획보다 많은 소형절단기를 생산한 기세로 연말까지 수신타의 소형절단기를 더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구상대로 세로지구 축산기지를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농생산물 기지연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공장에서 만든 설비들을 보여주신고 앞으로 축산을 발전시키자면 남시축산기계공장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종 공작기계를 보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임무를 가슴깊이 돌이켜보면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게 되였다.

지난 기간 소형절단기, 기류식 분쇄기를 비롯한 축산설비들을 제작하여 일군들에게 보내준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뜻깊은 올해 세로지구 축

산기지를 더 많은 먹이가공설비를 내주시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해나가고있다.

공장조립담당원들은 기류식 분쇄기와 로동자들에게 세로지구 축산기지를 보내준 축산설비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면서 설비들을 직접도 만들어 보내주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손봉호, 리영택, 리은식 등 로동자들은 지난 10월까지 125대의 소형절단기를 생산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연말까지 수신타의 축산설비를 더 만들어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력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전 공장에서 만든 축산설비들을 보여주신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남시축산기계공장을 잘 꾸려주는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같은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먹이공급을 위한 새로운 세로축산설비생산에서 혁신의 열의 밑에 투쟁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자 송창운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지구를 창조한것을 힘있게 되향하는 조립속도는 종전보다 5배 이상, 가공속도는 10배 이상 높이며서도 제품의 정밀도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농업성 일군들이 각종 규격의 절편과 환강, 선철 등 많은 재료를 해결해주어 공장의 축산설비 생산을 힘있게 꺾어주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난 10월까지 125대의 소형절단기를 생산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연말까지 수신타의 축산설비를 더 만들어낼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건설적극 추진

자강도에서

장학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청년돌격대원들이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명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기술지도를 짜고들고있다.

도청년돌격대의 1, 2세대 돌격대원들은 보은도에서 설비들의 만가공을 보장하여 말은 콩크리트혼합물생산은 매일 훨씬 넘쳐 수행하고있다. 5세대 청년돌격대원들은 말은 종막휘둘, 절근조립전투에서 혁신적 열의를 높이이고있다.

도당책임일군들이 건설장에 자주 나가 공식정형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건설기계의 리용법을 훨씬 높이도록 전기철원 넘쳐 수행하고있다. 그리고 겨울조건에서도 콩크리트혼합물의 양생온도와 시간,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

다. 차가평세멘트공장, 도립업관리국, 기계공업부 공장, 기업소 등에서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건설에 세멘트, 목재, 강재 등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시, 군들에서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건설을 힘껏 지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임무를 가슴깊이 돌이켜보면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게 되였다.

지난 기간 소형절단기, 기류식 분쇄기를 비롯한 축산설비들을 제작하여 일군들에게 보내준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뜻깊은 올해 세로지구 축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당이 구상대로 세로지구 축산기지를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농생산물 기지연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공장에서 만든 설비들을 보여주신고 앞으로 축산을 발전시키자면 남시축산기계공장을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종 공작기계를 보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임무를 가슴깊이 돌이켜보면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게 되였다.

지난 기간 소형절단기, 기류식 분쇄기를 비롯한 축산설비들을 제작하여 일군들에게 보내준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뜻깊은 올해 세로지구 축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7월



조선인민군 군부대관하 구분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11월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2. 8비발련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10월



홍남비료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10월



자강도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4월



희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5월



대동강그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10월



룡림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제100(2011)년 8월

세 폭의 붉은기높이 전진하는 선구자집단의 기수

3중3대혁명붉은기 김책대흥가공사업소 지배인 우길만동무에 대한 이야기

얼마전 평양에서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선구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이끌어주신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이 땅위에 우리 사회주의의 초석으로 되는 수많은 본보기단위들과 참된 인간정현들을 탄생시켰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길만이 부흥의 길, 단복의 길, 최후승리의 지름길이라는 진리를 력사애에 실증해주었다. 이 위대한 운동의 선구자들이 모인 대회장의 주시단에는 김책대흥가공사업소 지배인 우길만동무도 있었다.

첫

《투망!》
배가 일으키는 허연 물결기를 따라 그물이 술술 풀려나가고 불배를 따라 물고기떼들이 모여들어 검은 물결이 쭉기 시작했다. 선장이 행행한 버럭줄을 즉 쥘겨보며 《양망!》 하고 호기를 띄우며 구멍치기 어로공들이 모자 자기 위치를 차지하였다.
《지배인동진 물러서우다!》하고 선장이 격정하며 소리쳤지만 우길만지배인은 어로공들에게 단단히 자리를 잡았다. 발마사이에 연방 퍼들씩 뛰어오르는 물고기들을 보니 금방까지 속을 괴롭히던 펄리가 작사라지는듯싶었다.
《지배인이 승선하니 물고기가 별로 잘 잡히는구만.》
《세 지배인의 품이 다르다!》
배전에 넘치게 쌓이는 물고기무지들 둘러싸고 어로공들은 배할한 웃음을 띠었다. 그들과 어로된 우길만지배인의 마음도 바다바람처럼 시원했다.
(배에 오르기 직전, 한배에 타면 마음으로 움직이지 하나가 되는 이 어로공들을 앞장세우자!)
우길만동무가 지배인의 첫 사업을 승선으로도 선명하게는 서연이 있었다.

그는 이 사업소에서 제대배낭을 풀었고 지금껏 일했다. 사람도 일도 크고 크고 있었지만 그 지배인의 눈으로 끌어오르고난 흔적이 역력한 사업소의 실태는 어느것부터 해야 할지 신통 손끝을 들 수 없었 정도였다. 작업반들의 생산실적은 계획은 흔한 형태로 못되었다. 몇이신 기대를, 남은 견본들에서 거들거리는 상물들, 지배인의 책상위에 놓여있는 로동자들의 사직서, 민지리가 많은 출근부...

지배인으로 임명된지 얼마후 그는 종업원들의 김장음내문제때문에 주연농장의 한 작업반을 찾아갔다. 그 작업반에 문주처럼 서있는 커다란 갈밭에서 우길만 지배인은 큰 총격을 받았다.
《3중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
작업반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도 건물도 지어 땅 색깔도 다른데하고는 확실히 달라 보였다.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의 생활력에 대하여 구리빛얼굴의 작업반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여하튼 3대혁명붉은기정권을 쟁취하는 과정에 애꾸라기도 없었고 모든 일이 저절로 풀려나갔습니다. 뉘나뉘나해도 농사가 잘되지요.》
사업소로 돌아온 우길만지배인은 정문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렇다, 3대혁명붉은기정권을 쟁취하는 길만이 우리 사업소로 일어서는 길이니겠는가, 로동계급집단인 우리가 앞서지 못하는 것은 지배인이나 부리다가 사상이 뒤떨어졌기때문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 대하여 얼마나 간곡히 가르쳐주셨던가!)

사업소를 일떠세울 계획을 심에 넘쳐 이야기하는 새 지배인을 초급당시에는 믿음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호응해주었다.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대리석은 내가 맡겠소.》
이렇게 시작한 건설전투가 한창이던 초겨울 어느날 밤이었다. 판상에서 대리석 제품들을 싣고 사업소로 달려던 차가 그만 덜컥 뒷걸음쳐서고말았다. 지배인과 함께 떠났던 김태구동무는 사업소가 그리 멀지 않은데 빨리 연락해서 사람들을 부르자고 했다. 지배인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다음 단잠에 들었음엔데, 힘들어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거요.》
추위가 엄습해드는 속에서도 사업소들더 번듯하게 일떠세울 사색에 잠겨있는 지배인을 바라보는 김태구동무의 눈시울은 절로 젖어들었다.
《어떻게까지 꼭 품을 들여야 합니까?》
지배인은 조용히 입을 여었다.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세대야, 사업소의 첫 3대혁명기수들이 이런 뜻있는 사업소를 일떠세웠구나 하고 두고두고 추억하게 하고싶소. 어버이장군님께서 김책평을 지나시니 문득 우리 사업소에 들어서서 생산도 팽방 잘되고 당에서 바라보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가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한 3년동안인 사업소는 천지개벽되었다. 생산실적은 1, 8배로 잠상하였고 낡은 단층 건물은 온존조 없이 사라지고 2층짜리 외관도 화려한 건물이 여타되어 일떠세워, 사업소에서 나갔던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길만동무가 지배인으로 임명된지 3년 만인 2005년 8월 마침내 김책대흥가공사업소는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 쟁취하였다. 가장 어려운 시련을 끝내 이겨내고 집단도 사업소도 새롭게 태어난 번한 나날이 소중히 비껴있는 첫 3대혁명붉은기정권, 그것을 가슴에 무겁게 달래며 감정을 종업원들 누구나 지금도 잊지 못할 고고였다. 첫 근무제할을 수여받은 때 병사의 가슴처럼, 그 흥분처럼.

훈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장

《이렇게까지 꼭 품을 들여야 합니까?》
지배인은 조용히 입을 여었다.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세대야, 사업소의 첫 3대혁명기수들이 이런 뜻있는 사업소를 일떠세웠구나 하고 두고두고 추억하게 하고싶소. 어버이장군님께서 김책평을 지나시니 문득 우리 사업소에 들어서서 생산도 팽방 잘되고 당에서 바라보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가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한 3년동안인 사업소는 천지개벽되었다. 생산실적은 1, 8배로 잠상하였고 낡은 단층 건물은 온존조 없이 사라지고 2층짜리 외관도 화려한 건물이 여타되어 일떠세워, 사업소에서 나갔던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길만동무가 지배인으로 임명된지 3년 만인 2005년 8월 마침내 김책대흥가공사업소는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 쟁취하였다. 가장 어려운 시련을 끝내 이겨내고 집단도 사업소도 새롭게 태어난 번한 나날이 소중히 비껴있는 첫 3대혁명붉은기정권, 그것을 가슴에 무겁게 달래며 감정을 종업원들 누구나 지금도 잊지 못할 고고였다. 첫 근무제할을 수여받은 때 병사의 가슴처럼, 그 흥분처럼.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이렇게까지 꼭 품을 들여야 합니까?》
지배인은 조용히 입을 여었다.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세대야, 사업소의 첫 3대혁명기수들이 이런 뜻있는 사업소를 일떠세웠구나 하고 두고두고 추억하게 하고싶소. 어버이장군님께서 김책평을 지나시니 문득 우리 사업소에 들어서서 생산도 팽방 잘되고 당에서 바라보는대로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가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한 3년동안인 사업소는 천지개벽되었다. 생산실적은 1, 8배로 잠상하였고 낡은 단층 건물은 온존조 없이 사라지고 2층짜리 외관도 화려한 건물이 여타되어 일떠세워, 사업소에서 나갔던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길만동무가 지배인으로 임명된지 3년 만인 2005년 8월 마침내 김책대흥가공사업소는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 쟁취하였다. 가장 어려운 시련을 끝내 이겨내고 집단도 사업소도 새롭게 태어난 번한 나날이 소중히 비껴있는 첫 3대혁명붉은기정권, 그것을 가슴에 무겁게 달래며 감정을 종업원들 누구나 지금도 잊지 못할 고고였다. 첫 근무제할을 수여받은 때 병사의 가슴처럼, 그 흥분처럼.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우 길 만 동 무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우 길 만 동 무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우 길 만 동 무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우 길 만 동 무

《어 크게 써붙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정권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당세보비서들, 당원들을 일으켜세워주었습니다.》
당정당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야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에서 세기되는 행정실무적과업과 기술정적과업을 바로 수행하고 이 운동에 힘입어 힘고나갈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시미 지배인 우길만동무의 흥분을 세차례 두드렸다.
《예일 어렵고 힘든 과업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그는 로동자들의 공장애에 불을 지피고 생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사업소의 기본생산단위인 수산작업반을 맡아 배에 올랐던것이다.
만민의 기쁨을 안고 귀항길에 올랐을 때 그는 갑판에서 어로공들과 마주앉았다. 아무데도 만능을 얻는 물들이야 생산을 부벽 올릴수 있을것 같다는 지배인의 말에 어로공들은 신통 용하지 않았다. 수산사업소도 선박공장도 아닌 우리 사업소가 배 만들어낼수 있었는가 하는것이였다.
우길만동무는 어로공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리시대엔 맨손으로 트락도르도 만들었소.》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틀린거요. 시대는 발전했는데 어로공들의 정신은 퇴보했거요. 수산작업반의 3대혁명붉은기정권운동은 만능어선만들기부터 시작하거요. 내가 대장이 되었소.》



우 길 만 동 무 (오른쪽에서 첫번째)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인민사랑의 창조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해간다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공사장에서

군인기질, 군인본태로 열어가는데 돌격로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거창한 규모로 진행되는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 결사판전의 메아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전반적인 동물사들의 개건공사가 끝나고 자연박물관과 본관을 비롯한 방대한 운영 및 부속건물들의 외부공사가 계속된 현상에서는 지금 건물내부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대한 형성안대로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마다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는 위훈창조의 기수들속에는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도 있다.

부대가 여러 공사대상을 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용이 큰 목표를 내세웠을 때 로력과 건설기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불리한 공사조건앞에서 부대장병들의 결심은 이를 없앴다.

주야교대상을 바로 정하고 완강히 추진하려는 그들의 불같은 의지에 떠받들려 부대가 맡은 공사대상들에서 성과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본관기공공사가 한창일 때 빈틈한 자연박물관건물은 이미 2층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때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민첩단위보다 공사실적을 부쩍 높여 부대가 맡은 본관부조를 주변건물보다 더 높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어울러 공사속도를 더욱 높였다. 위험조립을 위한 조립나사가 필요할 때에는 주변공장에 달려가 수많은 조립나사를 해결해오는 등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치열한 결사전을 벌이는 립단위 단위가 되어 벌인 어려운 전투속에서 드디어 불같은 줄이 들고 기공코크리치기가 완성되었다.

부대가 맡아 추진하는 건물들의 연건축면적을 다 합치면 2만㎡가 훨씬 넘는다. 그렇듯 방대한 공사수행을 위해 온갖

구간의 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때 부대적인 시공량에 새롭게 편성되었다. 한쪽으로 물을 퍼내는 동시에 가름막이를 하고 기공코크리치기를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허리까지 치는 물속에서 지휘관, 병사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벌인 어려운 전투속에서 드디어 불같은 줄이 들고 기공코크리치기가 완성되었다.

부대가 맡아 추진하는 건물들의 연건축면적을 다 합치면 2만㎡가 훨씬 넘는다. 그렇듯 방대한 공사수행을 위해 온갖

불가능에 도전하던 나날에 수십명의 용감공과 수백명의 미장공들이 양성된 사실은 부대장병들이 걸어나 받치기가 어떤 결사판전의 행로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물결에 새겨지는 병사의 위훈속에서 조국의 모습이 굽어진다. 이런 자각을 안고 빛나는 위훈을 새겨가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에 의해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의 중앙동물원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전승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원철

떨치자 위훈을, 바치자 심장을

높아진 공사실적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장병들이 규모가 큰 보조건물공사를 추진할 때였다.

불리한 작업조건으로 하여 부대아래 립단위소속부대들의 공사실적은 도저히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당의 명령을 결사판철하

는 집에 뒤편이진 구분대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심한 부대지휘부 군관들은 낮에는 공사지휘를 하고 야간에는 30여명의 군관들로 돌격대를 꾸려 구분대와 함께 돌격전을 벌였다.

이들은 인민들과 함께 공

크리치기작업을 진행하고 철학에는 한데 어울려 오라되도 하며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적극 떠밀어 주었다.

부대지휘관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구분대는 최단기간에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게 되었다.

하루 동안에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에 부관직원의 외벽타입붙이기를 시급히 끝낼데 대한 긴급과제가 맡겨졌을 때였다.

타일붙이기작업에서 기본은 작도라고 할 수 있었다. 사업소일꾼들인 김성철, 원덕삼, 신우상동무들은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사업소의 기술일꾼들을

직장들에 내보내는 한편 다음날전부서공사를 위해 야간에 작도를 끝내기 위한 작정을 결의하였다. 야간작업에 필요한 도면을 비롯하여 조건들을 보장하면서도 일꾼들은 다음날전부를 위해 밤새우는 작업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승리는 전투시작전에 마련된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사업소적인 타일붙이기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전투력이 강한 5직장 전투원들은 반나절동안에 그날공사량의 80%를 해내는 자랑을 떨쳤다.

결과 하루동안에 2층으로 된 본관직원의 외벽타일붙이기는 전투 계속되었다.

힘 있는 경제선동으로

중앙동물원 안내봉사자들부터 이도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안성철, 신광희동무들의 청고선 선악과 김대용, 김홍희동무들의 기막연, 박승우동무의 힘있는 방충선동은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해나가는 군인건설자들

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도 군인들과 한전호에 선 마음으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이고있는 이들은 얼마전에 당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었다.

본사기자



희한한 모습을 드러낸 본관 건물

중양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에 참가한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는 대외건설지도국에서 주관하는 우수평가 기준에 따라 크지 않다. 그만큼 로력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사업소는 전투력이 있고 실적이 높은 단위로 되고 있다. 공사기간 여러 단계별 사회주의 경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업소적으로 이룩되는 성과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불철수 없는 현상에서 대외의 기수를 주도해나가는 이곳 일꾼들의 헌신적인 사업기질이 깃들여 있다.

혁신으로 이끄는 대외의 기수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부문 일꾼들은 당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박물관공사가 참가자였던 사업소가 절감어긋의 구조물건설과제를 맡은것은 지난 8월이었다.

그때 2천㎡가 훨씬 넘는 절감어긋의 공사량은 적지 않았

다. 못바닥에 각종 판류설치를 비롯한 내부구조를 완성하고 무감다리와 땅속에 기계설도 형성해야 했다.

하나하나가 어지간히 힘이 드는 공정들을 대부분 야외조건에서 수행해야 하였다. 그만큼 날씨가 추워서 많이 반군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운영설비부품공급을 비롯한 모든 공정수행의 정확도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했다. 이 모든 공사를 제정된 기일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일꾼들은 즉시로 인조석의 굵기보장을 위해 파쇄기와 야간작업에 리용할 조명보장용전기를 확보하는데 힘을 넣었다.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화선시정치사업에 앞서고 후방사업에서도 앞장을 메고 나선 사업소일꾼들의 헌신적인 사업기질을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적극 떠밀어준 조 하나의 중요하고 고되고 되어 공정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최정숙동무를 비롯한 3직장 일꾼들과 전투원들은 최단기간에 인조석미장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성하고 안전검정공사를 비롯한 2직장 일꾼들과 전투원들은 기계실공사실적을 부쩍 높였다. 비가 자주 내리는 속에서도 못한 여러 기계소에 손색없는 인공바위를 생겨나고 2중바닥형성을 위한 여러 공정들이 적지 않게 추진되었다.

은 집단이 하나로 융합되어 공사실적을 높인 결과 사업소는 얼마전에 진행된 단계별사회주의경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일꾼의 역할이자 집단의 힘이고 해방 단위의 실력이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전투력있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있는 사업소적인 공사성과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철갑상어 뱃 건설장

크나큰 은정을 받아안은 사리원시의 백살장수자

황해북도 사리원시 만큼은 12일만만의 김영덕 할머니가 백년재 생일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권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생일을 맞은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가슴벅차게 받아안은 열정과 행복앞에서 할머니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러 드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렸다.

주제 4(1915)년 12월 18일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가난한 농

사군의 딸로 태어난 그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망국노의 슬픔과 온갖 착취와 착취를 받으며 생계를 근근히 이어오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시는 후야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보람을 찾게 되었다.

그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과 날로 일을 성실히 해왔으며 근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나라의 알곡생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할머니는 많은 자손들을 키워 조국보위투쟁과 어렵고 힘든 부문들에 내세웠으며 그들에게 늘 교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를 잘 만들어내라고 하고 당부 하였다.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할머니와 가족, 친척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배운 어르신 할아버지는 은혜를 언젠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한몸 다 바치나갈 열의에 넘쳐났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제가 이렇게 편을 든것은 안악군 인민보안서 아배단위 인민보안원인 리학철동무를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전쟁로병들과 근로보장자들을 진심으로 돌봐주고있어 농장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그는 자주 그들의 집을 찾아 성의가 미치지 않는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며 한숨을 당과 조국을 받들어온것처럼 자식을 돌보듯 부모들의 사랑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부락하곤 합니다.

온 마을이 사랑하는 인민보안원

엔제인이 그는 신권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 부모없는 몇몇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명의 송곳을 미련하여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농사일을 잘하여 언제나 당에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청년들이 될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해마다 집에서 많은 거름을 모아 농장포전에 내주고

장난 트락토르를 보고 수심리깊을 다녀와 부속품을 구해다주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강변이 이삭이나 벼이삭을 떨것을 보고는 나라의 발전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농장원들에게 차근차근 해설해주곤 합니다.

그때 농장원들은 물론 마을사람들모두가 리학철동무를 가리켜 《우리 인민보안원》이라고 자랑하며 부러워하였습니다. 【로동통신원 려 창성】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일요일(20일) 오전 평양체육관에서는 4.25체육단, 기관차체육단, 평안강체육단, 금강산체육단, 평안강체육단, 금강산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권투결정경기가 진행된다.

이날 평안체육단 중경기에서도 4.25체육단, 안동체육단, 평안체육단, 리명수체육단, 모란봉체육단, 평안체육단 선수들의 유술대항경기가 있게 된다.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산리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녀경기는 23일과 24일까지 각각 계속되게 된다. 삼지연에서 시작된 스노고(고산, 거러) 1급, 청년급 녀, 녀경기가 24일까지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훌륭한 창조물에 비끼는 일본새

릉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에서

본래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1, 2호동공사에 참가하여 혁혁한 위훈을 새겨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견인봉활의 의지로 부딪히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 이신자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대견설 전투애로 불러일으키고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원형건물인 자연박물관 2호동부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성한 이들은 공사량이 방대한 1호동건물에서 여러층의 내부 구조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성과속에는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사업기풍으로 대외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사업소적인 창조물

창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공사과제수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들을 세웠다.

우선 종류가 다른 판유리를 결합하는 현상을 새로 꾸리고 빠른 기간에 계속하기로 하였다. 유리접합을 대기온도와 낮은 야외조건에서 진행한다면 일이 적지 않게 걸릴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1호동건물주변에 천여여 미 달하는 천막을 친 새 천막이 꾸려지고 실내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졌다. 편이여 유리를 접합하는 전투가 벌어졌다. 일꾼들은 유리접합공사를 내밀면서 완성된 유리천장의 조립작업준비도 동시에 내밀었다.

숙직이 아닌 원형건물의 골조기공과 기공사이 수백kg 이상 되는 유리천장을 조립할 수천개의 철물을 설치하고자 보니 용접기가 결정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때 초급대비서 김영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이 여러 공장, 기업소를 다니며 10여대의 용접기를 해결하여 공사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일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유리천장조립작업은 불과 하루동안에 끝나게 되었다.

공사가 추진되면 나날에 직장 안전호동무를 비롯한 5직장의 건설자들은 직장일 맡은 2중천정형성작업을 넘겨져 끝내는 혁신을 일었다. 한편 막중한 중무를 비롯한 8직장의 건설자들은 10여일간 걸려야 할 천막의 2중천정형성작업을 한주동안에 계속함으로써 한달 남짓한 기간에 사업소는 1만㎡가 훨씬 넘는 공사실적을 기록하고 일신 단위로 되었다.

본사기자 리영민



명금사 대조룡 건설장

대중운동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계속전진 앞으로!

각 지 당 조직들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지 당조직들에서 대중운동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이 직접 불어주고 조직지도하는 대중운동인것만큼 마땅히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평안북도당위원회 일꾼들이 본령을 내리고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 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수자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당지도를 강요하는 길로 해당 단위들에서 강연은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도안의 병도업적단위들이 세 차례의 병도업적 단위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급부문의 병도업적단위들이 앞장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대 결하여 계속 강화를 올리게 하고 있다. 평안북도건설자양성사업소와 광천기계연합기업소, 영변전지공장, 박천전지

공장 등 많은 병도업적단위들이 집단적열풍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제 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수자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당지도를 강요하는 길로 해당 단위들에서 강연은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진선동부 책임 일꾼은 도안의 병도업적단위들의 대중운동열풍을 깊이 로해하고 해당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는 도혁명사적전에 여러 차례 나가 짧은 기간에 건물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으며 병도업적단위들인 흥성기계연합기업소, 선천강철연합기업소, 선천강철기계공장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수십개의

병도업적단위들에서 혁명사적공양실을 훌륭히 꾸리는 등 좋은 성과가 편이여 이룩되게 하고 있다.

함남지구판관합기업소 당 책임일꾼은 고헌관관 통일업무가 판관들과 함께 탄차를 밀고 다니며 대중의 정신향을 불러일으켜 결의목표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으며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당 책임 일꾼도 대회장에서 돌아오는 길로 기계예술평화대원들과 함께 1합성직장의 생산능력향상을 위한 전투를 나가 화선시기계 연합기업소 2.8비료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단위들이 나가 화선시직장사업을 앞세우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서 전투장마대에서 집단적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도당위원회 선진선동부 책임 일꾼은 도안의 병도업적단위들의 대중운동열풍을 깊이 로해하고 해당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그는 도혁명사적전에 여러 차례 나가 짧은 기간에 건물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으며 병도업적단위들인 흥성기계연합기업소, 선천강철연합기업소, 선천강철기계공장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수십개의

본사기자 장철범

